

대학보건실 운영 실태조사

박천만, 한창현*, 김영복, 오카다 세츠코, 김현희·조형제·이종렬
계명대학교, *경동정보대학, 서남대학교, 우송대학교

1. 연구 필요성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대학에 보건실을 설치하여 교내 위생시설의 관리, 보건교육, 건강상담, 응급진료 등 대학 구성원들의 보건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보건인력 및 설비(환경)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보건실 운영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운영주체도 무분별하며, 대학보건실이 이용자인 학생과 교직원의 요구(needs)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학보건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 연구목적

대학보건실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학보건실의 사업내용, 대학보건실 이용 실태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대학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전문대학 및 대학교 352개교를 대상으로 대학보건실(보건진료소 등 명칭은 다양하나 이하 보건실이라 한다)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받아, 협조공문과 설문지를 2007년 9월 10일에서 2007년 10월 10일 사이에 e-mail로 발송하였으며, 응답지는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차로 회수된 설문지 총 148부(회수율 42%)이며, 회수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현재 2차로 설문지를 재발송 하였으며, 보건실 미설치 대학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지는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학교보건관리기준 가운데 학교보건실의 시설, 제도 및 기능,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보건관리활동(정기신체검사, 건강상담, 예방접종, 진료, 환경위생, 보건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4. 연구결과

조사한 148개 대학교 중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총 113개교(76.4%)이었으며, 이 중 국공립대학 25개교(78.1%), 사립대학 88개교(75.9%)에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대학학제별로는 대학교 79개교(90.8%), 전문대학 34개교(55.7%)에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어 전문대학의 보건실 설치율이 저조하였다. 학교보건실 명칭은 「보건진료소」가

33.0%로 가장 많았고, 「보건실」 23.2%, 「보건소」 13.4%의 순이었는데, 보건진료소는 대학교 37개교(46.8%)에서, 보건실은 전문대학 16개교(48.5%)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기타 명칭으로는 양호실, 보건진료센터, 건강관리실, 의료지원센터, 보건관리실, 보건센터 등이었다

대학보건실의 위치 및 장소로는 학생회관 건물이 50개교(44.6%)로 가장 많았고, 소속기관으로는 학생처가 53개교(46.8%)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실의 책임자는 일반대학 및 학과교수를 책임자로 두고 있는 대학이 34개교(31.5%)로 가장 많았다.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 가운데 정규직 의사가 근무하는 대학은 4개교(3.5%) 뿐이었다. 정규직 간호사가 근무하는 대학은 72개교(63.7%)이었으며 정규직 간호조무사 근무하는 대학이 9개교(7.9%)이었다. 정규직 한의사와 치과 의사가 근무하는 대학은 각각 1개교(0.9%)이었다. 정규직 약사가 근무하는 대학은 6개교(5.3%) 있었고, 정규직 치위생사 근무하는 대학이 5개교(4.4%) 였다.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중 43개교(38.1%)가 의료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보건실의 면적은 10평 이상 30평 미만인 대학이 60개교(53.6%)로 가장 많았고 병상수는 1-3개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53개교(47.8%)로 가장 많았다.

대학보건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건강검진 실시 79개교(69.9%), 건강정보제공 86개교(76.1%), 건강상담 94개교(83.2%), 예방접종 53개교(47.3%), 보건교육 71개교(63.4%)이었다.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흉부X-ray가 97.5%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소변검사, 체격검사, 간염항체검사, 기타 혈액검사 등이 80%이상 높은 복수응답비율을 보였다.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매체로는 교내게시판과 학교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대학이 각각 42개교(49.4%), 41개교(48.2%) 이었으며 학교방송을 이용하는 대학이 9개교(10.6%)로 가장 적었다.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의 보건교육실시항목으로는 금연교육이 83.6%로 가장 많았고 체중조절교육 62.7%, 성·피임교육 59.7%, 절주교육 56.7%, 혈압교육 55.2%, 당뇨교육 50.5% 등의 순이었다. 보건실의 사업우선순위로는 1순위로 국공립대(39.1%)와 사립대(55.4%) 모두 재학생·교직원에 대한 1차진료 사업이었으며, 다음이 응급의료 서비스로 각각 26.1%, 14.3% 이었다. 우선 해결과제로는 국공립대는 1순위가 인력부족(17.4%)인데 비해 사립대는 관련법 및 규정의 미비(26.8%)이었다. 상근정규직원 필요인력 우선순위로 국공립대학은 1순위 간호사(47.8%), 2순위 간호사(26.1%), 3순위 의사(21.7%) 순으로 응답하였고, 사립대학교는 1순위 간호사(60.7%), 2순위 의사(35.7%), 3순위 약사(21.4%)의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대학소재지 관할 보건소 및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교류를 하고 있는 대학이 전체 73개교(65.2%)이었고 금연구역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이 전체 101개교(89.4%)이었다.

5. 요약 및 결론

대학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대학보건사업의 개선과 효율적인 학생보건 관리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2007년 9월 10일에서 2007년 10월 10일 사이에 전국 전문대학 및 대학 352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차로 회수된 148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대학교 학교보건조직의 명칭을 보건진료소로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보건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진료소에 상근인원, 특히 상근 의사와 간호사를 확충하여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하며, 각 대학의 학교보건조직을 기술적으로 지원, 감독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 특성에 맞는 다양성 있는 학교보건사업의 실시가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각 대학의 관리자, 교직원 및 학생들이 학교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적인 배려와 교육홍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